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과 요구 분석*

-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이용자 및 비이용자를 중심으로 -

Citizens' Perception, Demands and Expectations of their Public Library Services in Daejeon

정 유 경 (Yoo Kyung Jeong)** , 박 성 희 (Sung Hee Park)***
권 선 영 (Sunyoung Kwon)**** , 김 보 일 (Bo Il Kim)*****
구 정 화 (Joung Hwa Koo)*****

목 차

- | | |
|------------------|---------------------|
| 1. 서 론 | 4. 도서관 인식 및 요구조사 분석 |
| 2.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현황 | 5. 결 론 |
| 3. 연구방법 | |

초 록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전 대표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급변하는 사회 및 기술 환경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및 대표도서관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대전지역의 특성을 조사하고, 대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인식 및 요구사항을 조사·분석하였다. 대전광역시의 권역별 인구비례 할당을 통한 오프라인 설문조사와 지역대표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1,383명의 응답을 수집하여 이를 통계 분석하였다. 대전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현대적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만족 및 불만족 사항을 조사하고 이용행태를 분석하였고, 대표도서관인 한밭도서관의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및 요구사항 또한 분석하였다. 기존 도서관에 대한 불만사항 또는 비이용 요인과 요구사항에 기반하여 향후 도서관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세우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 및 계획 방향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study examined citizens' information needs, perception and expectations of their public library services in Daejeon. The study analyzed citizens' demands and satisfaction(or dissatisfaction) of library services and facilities to develop comprehensive library plans and detailed strategies to satisfy the diverse users' needs (including non-users' needs) in the middle of rapidly changing socio-technological environments. To achieve the goal, the study collected the data by using both quota sampling and online and offline survey methods, and analyzed the 1,383 data through the statistical processes. The study found out the significant results and features, and suggested the implication and main points to apply the results to developing comprehensive library plans and strategies.

키워드: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서비스, 도서관 이용, 도서관 인식

Public Library, Public Library Services, Use of Libraries, Perception of Libraries

* 본 논문은 2021년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의 <2022~2026 한밭도서관 발전종합계획 수립 학술용역> 연구 보고서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yk.jeong@hnu.kr / ISNI 0000 0004 9285 4707) (제1저자)

***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sunghee@hnu.kr / ISNI 0000 0004 9416 489X) (공동저자)

****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sykw@hnu.kr / ISNI 0000 0004 6853 6987) (공동저자)

*****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kimboil1979@hnu.kr / ISNI 0000 0004 6815 1032) (공동저자)

*****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hkoo@hnu.kr / ISNI 0000 0004 7881 5461)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1년 7월 22일 최초심사일자: 2021년 8월 5일 게재확정일자: 2021년 8월 19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3): 239-258, 2021. <http://dx.doi.org/10.4275/KSLIS.2021.55.3.239>

※ Copyright © 2021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정보관련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도서관을 둘러싼 지역 및 사회 환경과 기술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미디어 기술의 다양화와 발전은 기술 환경의 변화와 지역 커뮤니티의 변화, 사회 환경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동체 의식의 저하 혹은 붕괴로 요약되는 지역 커뮤니티 환경의 변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정보이용 및 수요환경에 있어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사회 환경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도서관서비스 기획과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도전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한희정, 박태연, 서진원, 양동민, 2018). 이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는 『제3차 도서관 발전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하여 도서관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와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서관 발전을 위한 4대 전략방향과 13대 핵심과제 그리고 36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대전광역시 대표도서관인 한밭도서관 또한 새로운 정보기술의 변화와 확산으로 인한 정보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요구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대전지역 공공도서관들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제시한 발전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발전방향을 계획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한밭도서관은 1989년 명실상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공도서관으로 개관한 이후, 지역사회 주

민들을 위해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대전점자도서관을 건립하여 분가하였고, 공동보존서고를 건립하여 공간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으며 최근(2020년)에는 열람실 일부를 북카페형 열람실로 리모델링하여 기존 도서관 공간의 경직성과 노후화를 극복하고 공간의 개방성을 꾀하는 등 도서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2021). 그러나 여전히 건축 및 시설의 노후화와 공간의 협소 및 물리적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제2시립 대표도서관 건립을 앞두고 지역대표도서관으로써의 역할과 정체성의 재정립과 함께 향후 지속가능한 대전지역 공공도서관의 발전방향과 중장기 계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이런 지역대표도서관 및 지역 공공도서관들의 구체적인 비전과 발전방향의 제시는 그 지역주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요구와 이용(혹은 비이용)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만족시켜 주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략과 세부과제를 기획할 때 실질적인 성과 및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주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 및 이용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도서관 이용자뿐만 아니라 비이용자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지역 대표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요구, 기존 서비스와 시설 및 환경의 만족(혹은 불만족)의 요인들을 조사하고, 향후 제2시립대표도서관 건립시,¹⁾ 해당 도서관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지를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궁극적

1) 대전광역시의 시정방향과 전략별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제2시립도서관('20~'23) 건립이 계획되어 있고, 이미 대덕구 가양동에 도서관 위치 및 부지 선정은 완료된 상황이다(대전광역시 주요업무추진계획, 2021).

으로 본 조사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분석을 통해 지역대표도서관 및 대전지역 공공도서관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2.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현황

2.1 대전광역시 일반현황

대전광역시는 1995년 대전직할시에서 대전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5개구와 79개동의 행정 조직을 이루고 있다. 5개 자치구 중 유성구(176.4 km²)가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며, 구도심에 해당하는 중구(62.2km²)가 가장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인구수로는 서구가 484,663 명으로 가장 많으며, 가장 적은 인구규모를 보이는 지역은 대덕구(181,991명)로 나타났다. 지역 대표도서관인 한밭도서관이 위치해 있는 중구는 5개 자치구에서 크기와 인구수 측면에서 중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대전광역시, 2021).

대전광역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1년 현재와 2015년 인구수를 비교하였을 때 약 6만 명의 인구가 빠져나간 상태로 현재 145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인구 비율 또한 19세 이하가 17.6%, 20세~59세가 60.3%, 60세 이상이 22.1%를 차지하고 있어 도

시가 이미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2020).

대전광역시의 주요 사업으로, 2019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현재 117,557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대전광역시 통계, 2018).

문화시설로는 424개의 시설이 대덕구에 63개, 동구 54개, 서구 94개, 유성구 120개, 중구에 95개로 나뉘어져 구비되어 있고, 그중 도서관은 동구에 8개 유성구에 7개, 서구에 5개가 건립되어 있으며 대덕구, 중구가 각각 3개씩 보유하고 있어 대전광역시는 총 26개의 공공도서관과 251개의 작은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다(대전광역시 통계, 2020). 향후 대전광역시는 제2시립도서관 건립(중구 가양동 소재)을 통한 문화기반시설 확충하고, '시청사 시민물 운영'과 관련하여 하늘도서관 개방 및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 시민복합문화공간 개방을 통한 공동체문화 활성화 및 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대전광역시 통계, 2020).

2.2 공공도서관 현황

대전지역 공공도서관은 2019년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주체 도서관 24개와 교육청 주체 도서관 2개로 총 26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월평도서관(서구)과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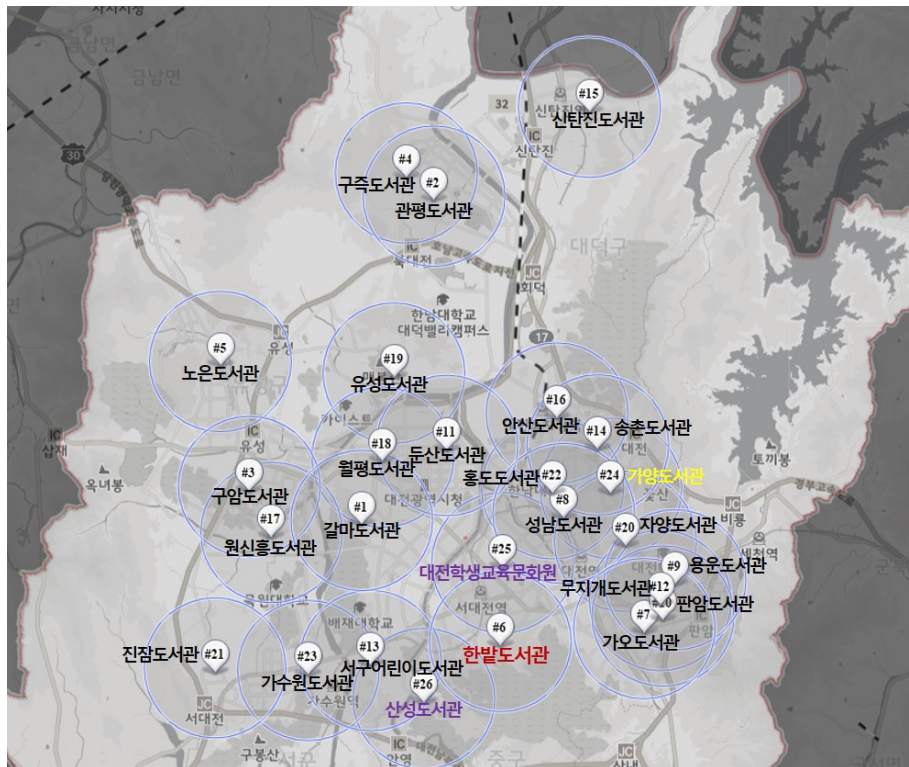
2) UN의 기준에 따르면, 고령화는 65세이상 인구의 비율에 따라 7% 이상 14% 미만까지는 고령사회, 14% 이상 21% 미만은 고령사회, 21% 이상을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5).

신흥도서관(유성구) 두 개의 도서관이 2019년에 건립되어 통계자료에는 아직 그 수치가 기록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2021년 현재 총 28개의 공공도서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도서관들은 각 자치구별로 동구에 8개, 중구 3개, 서구 5개, 유성구 7개, 대덕구에 3개가 등록되어 있다(〈그림 1〉 참조).³⁾

도서관 시설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부지면적, 연면적, 열람석을 파악하였으며 공간운영 영역의 경우는 열람실, 자료실, 기타 공간을 나누어 공간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대전광역시 도서관 부지면적 평균치는 5,491m²이고, 연면적의 평균치는 3,863m²이며 열람석 평균은 526석이다. 공간운영 분야 중 열람실의 경우 일반, 성인, 가족열람실 등 다양한 열람실이 존재하나, 특히 동구에 소재한 공공도서관들의 경우 두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열람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국 도서관의 1관 당 인구수는 45,723명으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추이를 대전광역시와 비교해 보면,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1관 당 인구수는 56,726명이며 자치구



〈그림 1〉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분포 및 서비스 반경을 표시한 지도

3) 〈그림 1〉은 대전광역시 도서관 현황을 나타내는 통계 내용(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통계내용)을 'XRayMap CS 버전(<http://www.biz-gis.com/XRayMap>)'을 활용하여, 도서관 서비스 반경을 직접 그린 지도이다.

〈표 1〉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시설 현황

자치구	도서관명	도서관부지 면적(m ²)	연면적 (m ²)	열람석 (석)	공간운영		
					열람실	자료실	기타 공간
동구	가양도서관	5,359	2,923	263	-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어린이영어도서관	동아리방(우암방, 율곡방, 다산방), 식당, 매점
	가오도서관	22,767	2,630	300	일반 열람실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유아방	문화교실, 시청각실, 동아리방
	성남도서관	336	540	120	-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유아실	회의실
	용운도서관	2,134	2,468	320	성인 열람실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어린이자료실	회의실, 휴게실, 시청각실, 문화교실
	관암도서관	355	468	80	-	어린이자료실(유아방포함), 종합자료실(동아리방포함), 디지털자료실	
	무지개도서관	107	511	71	-	종합자료실, 유아자료실	다목적실
	자양도서관	1,141	1,010	140	-	종합자료실, 유아자료실, 아동자료실	세미나실
	홍도도서관	2,209	932	100	-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평균	4,301	1,435	174			-	
중구	한밭도서관	19,682	22,485	2,598	열람실	자료실, 다문화자료실, 정기간행물실, 어린이자료실, 시각장애인실, 청록실(노인자료실)	디지털정보센터(디지털영상관, 정보검색실, 영상융합실, 멀티미디어연수실), 강의실, 전시실, 스터디그룹실, 강당
	대전학생교육문화원	4,500	4,990	431	열람실	유아코너, 전자정보실,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유아코너, 진로정보실, 교육지원실	강좌실, 식당, 마루홀(영화상영), 미팅룸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부설산성도서관	3,215	2,318	250	열람실	종합자료실, 유아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시청각실, 강좌실
	평균	9,132	9,931	1,093			-
서구	가수원도서관	4,887	3,877	372	일반 열람실	어린이도서실, 도서전자자료실	회의실, 문화행사실, 식당, 휴게실, 시청각실
	갈마도서관	1,488	2,706	495	일반 열람실	도서정보실, 전자정보자료실, 어린이도서실, 어린이영어자료실, 인산부실	문화행사실, A/V(회의실), 전시실, 북카페, 식당, 시청각실
	둔산도서관	1,000	2,367	450	일반 열람실	어린이자료실, 도서전자실, 교구놀이방	문화행사실, 휴게실, 시청각실, 전시실
	서구 어린이도서관	860	560	150	가족 열람실	그림책방, 어린이도서전자실	이야기방
	월평도서관	1,456	3,585	323	열람실	보존서고, 유아 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도서정보실	북카페, 카페테리아, 수유실, 이야기방, 놀이터, 상담실, 회의실, 휴게실, 문화교실1, 문화교실2, 시청각실, 하늘정원
	평균	1,938	2,619	358			-
유성구	관평도서관	809	2,029	166	열람실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문화나눔공간, 휴게실, 대강당
	구암도서관	2,486	916	372	열람실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구죽도서관	2,967	1,496	292	열람실	어린이실, 종합자료실	시청각실, 문화사랑방, 디지털휴게실
	노은도서관	7,523	3,355	355	열람실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시청각실, 독서사랑방, 매점
	원신홍도서관	4,782	3,888	263	열람실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보존서고	배움터, 지혜나눔터, 문화나눔터, 꿈나눔터, 강담, 갤러리북, 북카페, 와이파이존, 유아실, 수유실, 어울림터
	유성도서관	29,063	2,465	343	열람실	디지털자료실, 종합자료실, 아동자료실	상담실, 독서사랑방, 시청각실, 매점
	진잠도서관	1,913	2,590	484	열람실	디지털자료실,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동아리나눔터, 북나눔터, 생각나눔터, 휴게실, 시청각실
평균	7,078	2,391	325			-	
대덕구	안산 평생학습도서관	2,523	1,944	650	학습 열람실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보존서고, 노인·장애인실, 전자정보실, 인터넷/신문코너	그림책이야기방, 시청각실, 독서사랑방, 문화사랑방, 학습동아리방, 휴게실
	송촌 평생학습도서관	3,689	1,983	194	-	종합자료실(문헌정보, 전자정보), 어린이실, 유아실, 노인/장애인실	교양교실, 정보화교육장, 예술강좌실, 평생학습강좌, 세미나실, 학습동아리실, 다목적실, 휴게실
	신탄진 평생학습도서관	8,809	4,891	1,200	열람실	전자정보실, 노인장애인실, 어린이자료실, 유아실, 종합자료실, 보존자료실	노트북실, 식당, 매점, 전산교육장, 다목적홀, 강의실
	평균	5,007	2,939	681			-
전체평균	5,491	3,863	526			-	

별로 봐도 동구(28,348명)를 제외한 모든 구가 전국 도서관 1관 당 인구수보다 높아,⁴⁾ 더 많은 도서관이 대전광역시 내에 건립되어야 할 필요가 보인다(국가도서관통계, 2019; 대전 통계연보, 2018;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2019).

인력현황을 보면, 대전의 모든 도서관의 정규직 사서는 전체 직원수 393명 중 134명이었으며, 이는 법정사서정원⁵⁾ 296.35명보다 현저히 적은 수치로, 법적 대비 증감이 기본적으로 음수로 나타났다. 그중 -5명 이상의 수치를 보이는 도서관들이 많아 정규직 사서직이 더 많이 충원될 필요가 보인다(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19).⁶⁾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결산액은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모든 부분(인건비, 자료구입비, 운영비)에서 하위권에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한국도서관연감, 2019). 장서규모는 10만권 이상의 장서를 소장하여 전국 도서관 중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도서와 연속간행물의 경우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전자자료의 경우 전자자료가 하나도 없는 세종지역을 제외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1관 당 평균 도서 자료 수는 116,524권이며, 향토자료와 비도서자료는 한밭도서관에서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자자료 중 전자저널은 대표도서

관인 한밭도서관에서만 제공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매체를 바탕으로 장서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19).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지역 공공도서관의 평균 방문자 수는 1년에 289,495명으로 전국 평균치(217,650명)를 상회하고 있으나, 대전광역시의 대출자수와 대출권수의 평균치는 8,261명과 119,117권으로 전국평균치인 9,716명과 100,924권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프로그램 운영은 2016년 기준 867개였으나 프로그램 기준 변화에 의하여 2017년에 절반이 감소하였고, 2019년까지 43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독서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2016년보다 2019년에 25,055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독서프로그램 수와 참가자 수는 2019년 전국 도서관 평균치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동아리는 2017년에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469개까지 증가하여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2019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지만 2019년 기준 현재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다(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19). 이로써 이용자들의 장서를 중심으로 한 도서관 이용률은 낮으나 도서관 차원에서의 다양한 서비스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1인당 인구수를 도서관 수로 나누어 통계를 낸 결과, 2018년 현재 동구 28,346명, 중구 80,158명, 서구 96,244명, 유성구 49,910명, 대덕구 59,010명으로 전국 도서관 1관 당 인구수보다 높았다. 서구와 유성구의 경우 최근 들어 큰 폭으로 그 수치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9년에 개관한 두 도서관(월평도서관, 원신흥도서관)으로 인해 그 수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에 비하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19; 대전 통계연보, 2018;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2019).

5) 법정사서정원의 경우, 기본 3명의 사서에 연면적(기본 공간 330㎡ 제외)을 330㎡로 나눈 숫자를 더하여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6) 법적 대비 증감이 '-5'명 이상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도서관은 가양도서관, 한밭도서관, 가수원도서관, 갈마도서관, 대전둔산도서관, 서구어린이 월평도서관, 노은도서관, 원신흥도서관, 유성도서관, 진잠도서관,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이용자의 지역 공공도서관 이용현황과 도서관에 대한 인식, 도서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지역 도서관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공공도서관 이용자 및 비이용자를 대상으로 2021년 4월 2일부터 11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대전광역시의 권역별 인구비례 할당을 통한 오프라인 설문조사와 지역대표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위해 2020년 대전광역시의 권역별 인구비례로 대덕구 84부, 동구

105부, 유성구 168부, 서구 231부, 중구 112부를 배포하였으며, 각각 82부, 105부, 126부, 211부, 101부를 회수하였다. 배포한 설문지 700부 중 625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89.3%였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 조사방법의 비율을 높여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 758명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총 1,383명이며 인구통계정보에 응답한 1,373명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응답자는 남성 545명(39.69%), 여성 828명(60.31%)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연령 구성은 30대가 399명(29.60%)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30대, 40대가 전체의 약 8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사하게 '직장인/자영업'의 비율이 전체의 48.3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주부'(16.02%), '대학(원)생'(15.88%) 순이었다. 응답자의 거주지역의 측면에서는 인구가

<표 2>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응답자(명)	비율(%)	구분		응답자(명)	비율(%)
전체 (n=1,383)	인구통계 정보응답	1,373	99.99	직업 (n=1,373)	중고교생	33	2.40
	인구통계 정보무응답	10	0.01		대학(원)생	218	15.88
이용여부 (n=1,383)	이용	1,232	89.02		주부	220	16.02
	비이용	151	10.92		직장인/ 자영업	664	48.36
성별 (n=1,373)	남성	545	39.69		취업/ 진학준비	153	11.14
	여성	828	60.31		퇴직자	36	2.62
연령 (n=1,373)	10대	38	2.77		기타	49	3.57
	20대	383	27.90	권역 (n=1,370)	동구	222	16.20
	30대	399	29.60		중구	341	24.89
	40대	331	24.11		서구	410	29.93
	50대	166	12.09		유성구	265	19.34
	60대	48	3.50		대덕구	132	9.64
	70대 이상	8	0.58				

가장 많은 서구의 응답자가 410명으로 전체의 29.93%였으며, 중구가 341명(24.89%), 유성구가 265명(19.34%)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의 인구비례로 보면 유성구의 인구가 중구보다 많지만, 온라인 설문조사의 영향으로 지역대표 도서관이 위치한 중구의 응답자가 더 많이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 1,383명 중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한 응답자는 1,232명으로 전체의 89.08%였으며,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한 응답자는 151명으로 약 10.9%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단수 또는 복수선택 문항, 의견을 기재할 수 있는 기타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만족도 및 긍·부정 인식에 대한 조사는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선택형 문항은 빈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만족도 및 긍·부정 인식에 대한 결과는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차분석 및 분산분석을 수행하여 통계검정을 수행하였다.

3.2 설문조사 항목

설문내용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이동 수단, 도서관 이용 이유 및 비이용 이유, 도서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이용, 도서관 만족 및 불만족 이유 등 이용자의 행태와 관련된 항목과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도서관 서비스 및 기능과 관련된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공공도서관 이용 및 인식' 항목,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과 이용자들의 요구, 지역대표도서관의 접근성, 공간구상, 서비스 등 28문항으로 구성된 '지역대표도서관 이용 및 인식' 항목 등으로 설문조사 내용을 구성하였다. 특히, 지역대표도서관의 확장성과 관련된 항목으로 향후 건립될 '제2시립도서관'과 관련된 내용을 설문 문항에 추가하여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상세한 설문조사의 내용 및 설문문항 수는 <표 3>과 같다.

<표 3> 설문지 내용구성

구분	요소	문항수
공공도서관 이용 및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목적, 방문도서관 수 • 공공도서관 이용 교통수단 • 공공도서관 이용 만족도, 만족 항목, 불만족 항목 • 공공도서관 비이용 이유 •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블로그, 모바일 앱, SNS 이용 빈도 • 현재/미래 공공도서관의 가치와 지역사회/가족에 미칠 영향 	16
지역대표도서관 이용 및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표도서관 이용 여부, 인식(인지) 여부 •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우선시해야 하는 업무) • 현재 건물에 대한 의견: 교통, 주차, 서비스, 환경, 심미성, 첨단기기 보유여부, 장애인 시설 • 내부 시설에 대한 의견: 안락성, 공간구성, 채광, 장비, 확장성, 여가/휴식 공간, 디지털기기대여 • 서비스 우선순위, 자료 우선순위, 배려 이용자층, 특화 서비스 	28
제2시립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제2시립도서관의 희망 건립 위치 • 향후 제2시립도서관 건립 입지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점 	2
인구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의 성별, 연령대, 직업, 거주 지역 	4

4. 도서관 인식 및 요구조사 분석

설문조사 분석내용은 공공도서관 이용 및 인식,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에게 대한 의견, 지역대표도서관 이용 및 인식(인지), 제2 시립도서관에 대한 항목 순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4.1 공공도서관 이용 및 인식

공공도서관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도서관 이용 빈도와 방문경험이 있는 도서관, 만족 또는 불만족하는 측면, 웹서비스와 항목에 대해 설문하였다.

1,383명의 응답자 가운데, 32.25%에 해당하는 446명의 응답자가 월 1~2회 도서관을 방문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주 1~2회에 방문한다고 한 응답자는 260명(18.87%), 2~3개월에 1회 방문하는 이용자가 193명(13.96%) 순으로 나타났다. 연 1~2회 방문한다고 한 응답자는 전체의 11.7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대와 직업에서도 공공도서관의 이용 빈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 < 0.00$) 대부분의 연령대는 월 1~2회 방문한다고 응답했으나, 10대 이용자들은 주3회 이상 공공도서관을 방문한다고 한 응답자(26.32%)가 가장 많았다. 직업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중고교생과 취업/진학을 준비하는 이용자들이 주3회 이상 공공도

서관을 이용하였으며,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월 1~2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공공도서관의 이용 빈도의 분포는 <표 4>와 같다.

대전광역시 공공도서관 중 방문 경험이 있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복수응답으로는 지역대표도서관인 중구의 한밭도서관이 583명(22.51%)으로 방문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서구의 월평도서관(6.33%), 갈마도서관(5.79%), 둔산도서관(5.71%), 가수원도서관(5.17%) 순으로 방문경험이 많았다. 추가로 응답자의 거주지별로 방문 경험이 있는 도서관의 비율을 측정하였는데, 대체로 해당 지역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을 방문하는 경향을 보였다. 동구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방문경험이 가장 많았던 도서관은 동구의 용운도서관(14.08%)과 가오도서관(12.18%)이었으며, 서구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지역대표도서관인 한밭도서관(48.19%)을 제외하고, 월평도서관(12.73%), 갈마도서관(12.36%), 가수원도서관(10.18%) 순으로 많이 방문했으며, 유성구 역시 유성도서관(12.84%), 노은도서관(10.51%) 순으로 많이 방문했다. 대덕구와 중구의 거주하는 응답자들 또한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한 도서관을 가장 많이 방문하여, 지리적 접근성이 높은 공공도서관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었을 확인할 수 있었다($\chi^2 = 2228.71$, $p < 0.00$). 특히 지역대표도서관이 위치한 중구는 응답자의 약 절반가량인 48.19%가 지역대표도서관을 방문했다고 응답하였다(<표 5> 참조).

<표 4> 1년간 공공도서관 방문빈도

구분	주 3회 이상	주 1~2회	월 1~2회	2-3개월 1회	연 1~2회	이용 안함
빈도	169	260	446	193	163	151
비율	12.22	18.87	32.25	13.96	11.79	10.92

〈표 5〉 대전광역시 공공도서관 중 거주지별 방문경험이 있는 도서관

지역	도서관	응답수(명)	동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	중구(%)
대덕구	송촌도서관	79	4.2	17.28	1.45	1.36	1.08
	신탄진도서관	77	1.05	17.80	1.33	4.09	1.08
	안산도서관	61	1.89	13.09	1.58	1.75	0.72
동구	가양도서관	91	7.56	5.24	2.30	1.95	2.71
	가오도서관	92	12.18	0.52	1.21	1.75	2.35
	무지개도서관	45	6.93	0.00	0.24	0.97	0.90
	성남도서관	27	1.89	3.14	0.48	0.78	0.54
	용운도서관	92	14.08	2.62	0.85	0.97	1.26
	자양도서관	20	1.68	1.57	0.12	0.19	1.26
	관암도서관	53	9.03	0.00	0.12	0.97	0.54
	홍도도서관	15	1.05	2.09	0.48	0.19	0.18
서구	가수원도서관	134	2.94	1.05	10.18	1.56	4.15
	갈마도서관	150	2.52	2.62	12.36	3.11	2.17
	둔산도서관	148	1.89	4.19	11.76	2.53	3.25
	서구어린이도서관	53	0.63	1.05	4.85	0.78	0.54
	월평도서관	164	2.52	2.62	12.73	5.06	2.17
유성구	구암도서관	67	0.84	0.52	2.06	7.00	1.62
	구죽도서관	49	0.21	2.09	0.85	6.42	0.72
	관평도서관	37	0.21	1.05	0.61	4.47	1.08
	노은도서관	79	0.63	0.52	1.33	10.51	1.62
	원신흥도서관	84	0.84	0.52	3.52	7.98	1.62
	유성도서관	101	0.21	1.57	2.91	12.06	1.44
	진잠도서관	60	0.00	0.52	2.30	5.64	1.44
중구	한밭도서관	583	19.54	9.95	16.61	12.84	48.19
	대전학생교육문화원	108	3.15	1.57	3.52	2.33	8.84
	산성도서관	78	1.68	0.00	3.27	0.97	6.86
총계		2,547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공공도서관을 방문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 수단으로는 주로 승용차(35.5%)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버스(29.87%), 도보(25.4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을 통한 공공도서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6〉 참조).

이러한 경향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때 만족하는 부분과 불만족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다음 〈표 7〉은 공공도서관 이용시 만족하는 항목과 불만족하는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을 보여준다. 장서(34.48%)에 대한 만족이 가장 높았으며, 시설 및 장비(18.45%), 사서 및 직원(13.73%) 순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 항목으로는 위치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불만족 사항은 한 가지 항목에 대한 불만보다는 대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해 있었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장서 및 사서(직원)에 대한 것이었으며, 만족에 비해 불만족의 비율이 큰 항목은 교육프로그램, 행사, 위치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특히,

〈표 6〉 공공도서관 방문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구분	버스	지하철	택시	승용차	자전거·킥보드	도보	기타
빈도	382	53	20	454	35	326	9
비율	29.87	4.14	1.56	35.5	2.74	25.49	0.7

〈표 7〉 공공도서관 이용시 만족·불만족 항목

구분		장서 (책)	시설 (장비)	사서 (직원)	자료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행사	위치	기타
만족	빈도	811	434	323	278	133	39	310	24
	비율	34.48	18.45	13.73	11.82	5.65	1.66	13.18	1.02
불만족	빈도	298	336	144	238	301	232	339	187
	비율	14.36	16.19	6.94	11.47	14.51	11.18	16.34	9.01

〈표 8〉 연령대에 따른 공공도서관 이용시 불만족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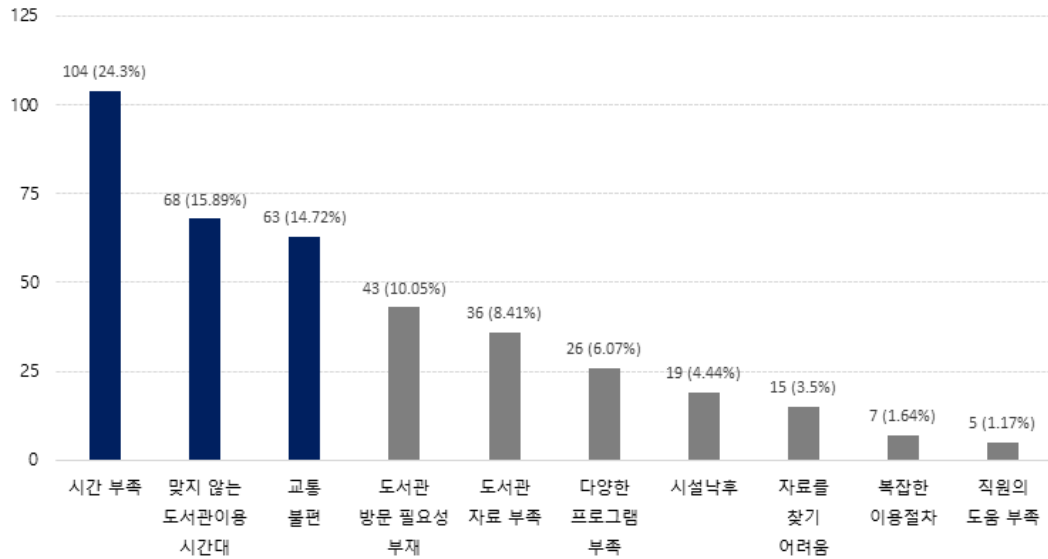
연령대	사례수	장서 (책)	시설 (장비)	사서 (직원)	자료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행사	위치	기타
10대	59	11.86	16.95	3.39	15.25	10.17	13.56	18.64	10.17
20대	555	11.71	13.15	6.49	11.35	13.33	12.07	20.36	11.53
30대	650	14.77	18.46	6.92	12.15	14.92	11.38	14.62	6.77
40대	509	17.29	14.54	8.25	11.20	16.70	9.63	12.97	9.43
50대	230	14.78	21.30	4.35	8.26	12.17	11.74	19.57	7.83
60대	52	13.46	15.38	13.46	11.54	17.31	7.69	11.54	9.62
70대 이상	10	0.00	10.00	10.00	20.00	20.00	20.00	20.00	0.00

연령대별로는 불만족스러운 항목이 다르게 나타났는데($\chi^2=59.68, p<0.00$), 10~20대는 위치에 가장 불만족하였으며 30대, 50대는 시설(장비), 40대는 장서(책), 60대는 교육/프로그램에 가장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 부족(24.3%)이 가장 높은 이유로 나타났으며, 맞지 않는 도서관 이용 시간대(15.89%)와 같이 개인적인 이유가 가장 컸다. 반면, 교통이 불편하다는 의견(14.72%)과 기타 응답으로 '주차공간 부족' 및 '주차시설' 등 주차시설

이용의 불편을 호소하여 교통관련 접근성이 도서관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공공도서관의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홈페이지, 모바일앱, SNS와 같은 웹서비스의 이용 빈도의 성별에 따른 분포는 〈표 9〉와 같다. 홈페이지 이용의 경우, 월 1~2회(25.33%) 이용이 가장 높았으며, 이용안함(23.36%), 연 1~2회(15.69%) 순으로 나타났고, 홈페이지 이용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chi^2=42.64, p<0.00$). 남성은 이용안함(32.03%)이 가장 높고 여성은 월 1~2회(26.61%) 이용이 가장 높



〈그림 2〉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표 9〉 성별에 따른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모바일앱, SNS 이용 빈도 분포(비율)

항목		주3회 이상	주1~2회	월1~2회	2-3개월 1회	연1~2회	이용안함
홈페이지	전체	6.42	15.40	25.33	13.80	15.69	23.36
	남	5.59	13.22	23.84	10.43	14.90	32.03
	여	6.68	16.89	26.61	16.16	16.28	17.38
모바일앱	전체	4.96	11.90	17.45	8.47	8.54	48.61
	남	3.54	12.13	18.10	6.90	9.89	49.44
	여	5.83	11.77	17.23	9.59	7.65	47.82
SNS	전체	2.99	7.30	9.34	5.40	9.12	65.84
	남	3.17	9.50	9.87	4.84	10.61	62.01
	여	2.79	5.95	9.11	5.71	8.26	68.17

아 여성 이용자의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모바일 앱과 SNS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용자들의 관심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가치와 영향에 대해서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매우 큰 가치를 지닌다는 응답(38.69%)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5.78점으로 전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의 가치를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표 10〉 참조).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공공도서관의 가치가 '매우 크다'(42.34%)고 응답한 이용자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 5.91점으로 향후 공공도서관의 가치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부재로 인한 지역사회의 영향(평균 5.87점)과 개인 및 가족에게 미칠 영향(평균 5.50점)도 매우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10〉 공공도서관의 가치 및 영향

항목	공공도서관의 현재 가치	공공도서관의 미래 가치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 영향	공공도서관이 본인·가족에 미칠 영향
전체	5.78	5.91	5.87	5.5
남	5.39	5.62	5.73	5.66
여	821	5.89	6.02	6
t(p)	-3.65(0.00)	-4.00(0.00)	-4.72(0.00)	-4.13(0.00)

4.2 지역대표도서관 이용 및 인식

지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의견으로, 해당도서관을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의 70.41%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도서관이 위치한 중구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이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p<0.00). 해당 도서관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78.81%가 해당도서관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인지하고 있었다(〈표 11〉 참조).

현재 지역대표도서관의 위치 적절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4점(보통)으로 대답한 응답자(27.56%)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 4.2점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약간 많았다. 다만,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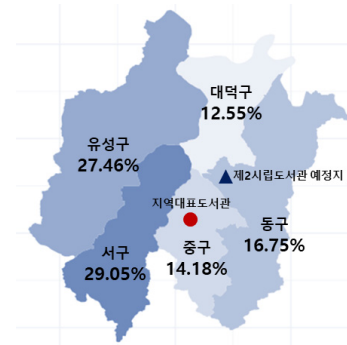
한 권역별로 위치 적절성에 대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66.80, p<0.00), 지역대표도서관이 위치한 중구(5.21점)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의 점수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다음으로 동구(4.39), 유성구(3.85), 서구(3.64), 대덕구(3.67)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거주지에 가까울수록 도서관이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대전광역시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2시립도서관 건립을 확정하여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된 이용자들의 지역 선호도와 요구를 조사하였다. 향후, 제2시립도서관을 건축할 때 선호하는 지역에 관해서는 인구가 가장 많고 대전의 중심부인 서구(29.05%)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유성구(27.46%), 동구(16.7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지역대표도서관 이용 여부 및 대표도서관으로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항목		전체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이용 여부	예	빈도	971	161	308	282	144	70
		비율	70.41	72.52	90.59	68.95	54.34	53.03
	아니오	빈도	21	20	9	21	25	25
		비율	29.59	27.48	9.41	31.05	45.66	46.97
대표도서관 인지 여부	예	빈도	1,086	175	304	316	189	94
		비율	78.81	78.83	89.41	77.26	71.59	71.21
	아니오	빈도	17	17	9	18	20	21
		비율	21.19	21.17	10.59	22.74	28.41	28.79

(〈그림 3〉 참조). 이 또한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응답에 차이가 있었는데($\chi^2=656.64$, $p<0.00$), 대체적으로 응답자의 거주지 근처를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때 도서관 건립에 고려해야할 입지요소로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38.29%)을 가장 중요한 입지요소로 꼽았으며, 주변이 조용한 지역(17.59%),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17.51%) 순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그림 3〉 제2시립도서관 건립 선호 위치

〈표 12〉 도서관의 서비스 및 건물에 대한 만족도

구분		매우 불만족 ← → 매우 만족							평균 (점)
		1	2	3	4	5	6	7	
독서에 적합한 조도	빈도	13	23	67	456	289	289	208	5.00
	비율	0.97	1.71	4.98	33.9	21.49	21.49	15.46	
자료와 프로그램의 다양성	빈도	24	38	79	432	309	288	178	4.88
	비율	1.78	2.82	5.86	32.05	22.92	21.36	13.2	
사서의 전문성: 서비스 수준과 친절	빈도	25	41	80	455	256	301	188	4.88
	비율	1.86	3.05	5.94	33.8	19.02	22.36	13.97	
편의시설	빈도	18	32	98	447	300	258	192	4.87
	비율	1.34	2.38	7.29	33.23	22.3	19.18	14.28	
신기술, 독서, 행사 공간	빈도	18	32	119	464	287	265	159	4.79
	비율	1.34	2.38	8.85	34.52	21.35	19.72	11.83	
특수 이용자 배려	빈도	22	41	95	508	279	239	161	4.74
	비율	1.64	3.05	7.06	37.77	20.74	17.77	11.97	
휴식공간	빈도	26	46	126	465	286	229	157	4.69
	비율	1.95	3.45	9.44	34.83	21.42	17.15	11.76	
첨단기술 적용 여부	빈도	32	57	127	497	278	207	137	4.57
	비율	2.4	4.27	9.51	37.23	20.82	15.51	10.26	
최신 디지털기기 보유 정도	빈도	41	67	137	557	253	190	101	4.40
	비율	3.05	4.98	10.18	41.38	18.8	14.12	7.5	
건물의 친환경도	빈도	61	85	154	481	257	167	130	4.36
	비율	4.57	6.37	11.54	36.03	19.25	12.51	9.74	
주차 공간	빈도	105	117	133	469	219	170	137	4.21
	비율	7.78	8.67	9.85	34.74	16.22	12.59	10.15	
대중교통 접근성	빈도	126	150	130	448	179	155	167	4.13
	비율	9.3	11.07	9.59	33.06	13.21	11.44	12.32	
건물의 심미성	빈도	110	126	166	453	216	154	112	4.08
	비율	8.23	9.42	12.42	33.88	16.16	11.52	8.38	
상업시설 접근성	빈도	107	133	193	436	224	146	109	4.05
	비율	7.94	9.87	14.32	32.34	16.62	10.83	8.09	
공공기관 접근성	빈도	116	137	170	507	192	143	84	3.95
	비율	8.6	10.16	12.6	37.58	14.23	10.6	6.23	

다음으로, 현재 지역대표도서관의 접근성, 시설, 프로그램 다양성 등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건물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응답자들은 충분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다고 느끼는 편이었으며, 사서들이 친절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인적·물적 서비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반면,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는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 주차 공간, 공공기관 및 상업시설과의 인접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에 대한 의견으로는 4점대 후반으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있으며, 특히 독서와 관련된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독서에 적합한 조도와 안락시설, 신기술이 적용된 공간, 행사 공간 등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 취미 및 휴식을 위한 공간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건물이 친환경적인지, 건물이 관광자원이 될 만큼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향후 지역대표도서관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사항으로는 다음 <표 14>와 같다. 독서 관련 서비스(14.69%)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다양한 문화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14.18%), 정보 활용 교육 서비스(12.09%) 순

<표 13> 제2시립도서관 건립시 고려해야할 점

항목	빈도	비율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	1,010	38.29
주변이 조용한 지역	464	17.59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지역	462	17.51
아파트단지 밀집지역	235	8.91
행정 및 공공기관 밀집지역	206	7.81
학교 부근	135	5.12
상가 밀집지역	92	3.49
기타	34	1.29

<표 14> 도서관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

항목	비율	항목	비율
독서 관련 서비스	14.69	디지털정보 제공 서비스	5.63
문화 및 평생교육 서비스	14.18	취창업 비즈니스 정보서비스	5.20
정보 활용 교육 서비스	12.09	주민(동아리) 교류 서비스	4.97
정보 검색 및 제공 서비스	9.94	기술이용 창작교육 및 활용 서비스	4.69
비대면 자료 이용 서비스	9.61	건강과 보전에 관한 정보 서비스	3.10
원거리 제공 서비스	6.36	정보 신뢰성 검증 서비스	2.83
정보 취약 계층 서비스	6.13	기타	0.56

으로 응답하였다. 상대적으로 정보신뢰성 검증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는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대표도서관의 공간, 장서구성 개선 및 배려해야 할 이용자층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호는 <표 15>와 같이 나타났다. 지역대표도서관의 공간 개선을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는 자료실 내 자료 이용 및 독서 공간(20.66%)이 가장 높았으며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실(16.01%), 휴게공간(카페테리아/식당)(15.95%) 순으로 응답한 반면, 메이커스페이스(2.45%)와 같은 기술 이용 창작공간에 대한 요구는 낮았다.

장서(도서·자료) 구성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는 일반도서 대체로 문학 및 교양도서(22.51%)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e-book을 포함한 전자도서(12.98%), 어린이도서(11.84%)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비중은 낮았으나 큰글자도서(4.33%) 및 점자도서(3.43%)와 같이 장애인 이용자층을 위한 요구가 눈에 띄며, 비도서 자료에 대해서

는 과거에 많이 사용되던 CD나 DVD(블루레이 포함)(4.36%)에 대한 선호보다 영상 스트리밍(7.66%)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았다.

도서관에서 배려해야 할 이용자층에 대해서는 청소년(13.51%), 어린이(13.18%) 이용자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수를 보였다. 특히, 응답자의 연령과 직업에서 배려해야 할 이용자층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주부와 중장년층 이용자층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 이용자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대전을 상징하는 특화된 주제나 서비스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표 16> 참조), 문화·예술(29.86%)과 과학·문화(28.88%) 관련 주제로 특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직업에 따라서는 학생이나 취업 및 진학을 준비하는 응답자는 문화예술에 대한 응답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주부, 직장인이나 자영업, 퇴직자의 경우 과학·문화와 관련된 주제로 도서관 서비스를 특성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15> 도서관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 장서, 이용자층

공간	비율	장서구성	비율	배려해야 할 이용자층	비율
자료실 내 자료이용(독서) 공간	20.66	일반 도서	22.51	청소년층	13.51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 공간	16.01	전자도서	12.98	어린이층	13.18
휴게공간	15.95	어린이도서	11.84	취업준비생	11.58
컴퓨터(인터넷) 공간	9.76	학술도서	9.95	노년층(65세 이상)	9.47
프로그램(평생교육) 공간	8.82	영상 스트리밍	7.66	장애인	8.44
강연, 공연, 행사를 위한 공간	6.90	외국어(다국어) 도서	6.85	직장인	7.69
음악 및 영상 감상공간	5.94	그림책	5.77	대학(원)생	6.97
디지털 미디어 공간	4.93	음성도서	5.17	영유아층	6.54
전시 공간	4.02	신문 및 잡지	4.79	중장년층	5.44
주민(동아리)모임 공간	3.94	비도서자료	4.36	이주민(다문화가족)	5.06
메이커스페이스	2.45	큰글자도서	4.33	주부	4.86
기타	0.61	점자도서	3.43	가족중심/단위	4.23

〈표 16〉 대전을 상징하는 특화된 주제 또는 서비스(비율)

구분	사례수	문화예술	생태관광	과학문화	육아/교육	역사	기타	
전체	2,652	29.86	14.71	28.88	15.12	10.52	0.90	
직업	중고교생	64	37.50	17.19	23.44	12.50	7.81	1.56
	대학(원)생	425	32.71	13.88	28.71	12.94	11.29	0.47
	주부	424	26.89	15.33	27.12	20.99	8.02	1.65
	직장(자영업)인	1,283	29.31	15.04	30.24	15.43	9.43	0.55
	취업(진학)준비	297	29.97	14.81	26.94	11.78	15.15	1.35
	퇴직자	65	27.69	9.23	36.92	7.69	16.92	1.54
	기타	92	33.70	13.04	22.83	11.96	16.30	2.17

연령대가 높은 직업군에서는 대전을 과학기술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과학기술도시로 인식하고 이를 도서관 특성화에 반영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학생들의 경우 이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두 주제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통해 도서관 서비스를 특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전지역 내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과 한밭도서관의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1차로 각종 국가 및 행정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대전지역과 대전지역 도서관의 환경 및 도서관운영에 대한 현단계 상황을 조사하였다. 2차로 대전광역시의 시민들(도서관 이용자 및 비이용자 모두 포함)을 대상으로 지역 공공도서관과 대표도서관에 대한 인식 및 만족여부 그리고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 지역 공공 도서관 및 한밭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개선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지역 공공도서관들과 대표도서관의 물리적 그리고 시간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도서관발전이 계획되어야 한다. 대전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한 가장 큰 불만요소로 도서관 위치 및 입지조건, 즉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 비이용의 이유로 개인의 문제(시간의 부족) 이외에도 도서관열람 가능 시간대가 이용하기 맞지 않거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점을 들어 물리적 접근성과 함께 시간적 접근성이 낮은 점이 대전지역 공공도서관들의 가장 큰 단점이자 비이용자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 결과를 수용하여 대전지역 도서관들은 일반적인 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하여 보다 다양한 선택 시간대를 이용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적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도서관의 물리적 접근성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 노선을 공공도서관들을 경유하게 하고, 그 경유 정거장 혹은 역의 이름을 공공도서관 이름으로 명명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이를 통해 물리적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도서관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차후 개관

될 도서관들의 경우, 위치 및 입지조건을 선정할 때 특정 지역구에 쏠리지 않고 지역별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위치가 고려되어야 하며, 대중교통과 행정 및 복합 상업시설과의 접근성이 높은 곳을 선점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 과정은 대전지역 도서관 및 대표도서관만의 노력이 아닌 대전시와 함께 논의하여 계획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서관 건물 및 시설의 노후화를 다차원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도서관발전과 계획이 논의되어야 한다. 기존의 한밭도서관의 시설과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과 만족감을 표했으나, 한밭도서관의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의 부족, 부족한 주차공간과 공공 및 상업시설과의 인접성이 떨어지는 것에는 큰 불만을 보였다. 또한 기존 건축물이 문화 및 관광자원이 될 만큼 심미적이고도 상징적으로 지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특히 한밭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의 비이용 및 불만족의 주요 요인의 대부분이 건물 및 시설의 노후화임을 상기할 때, 증축 및 개축 혹은 실내 디자인의 현대화 및 리모델링을 꾀할 때 어떤 기능성과 상징성 그리고 심미성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건축의 친환경성을 담보하고 건축물 자체가 대전의 랜드마크 혹은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될 만큼 심미적으로 리모델링되어야 할 뿐 아니라, 현대화되고 미래지향적인 서비스 개발이 우선적으로 구상되어 그것에 걸맞는 공간구성과 디자인으로 리모델링되어야 할 것이다(구정화, 조용완, 2021). 따라서 대전지역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도서관 재건축 및 증축 또

는 리모델링 계획을 위한 전략과 실행방안이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설문조사에서 온라인공간에서의 도서관 이용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결과에서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그리고 도서관 블로그와 SNS 이용이 전무하다 할 정도로 이용률이 매우 낮았고, 젊은 층(10대와 20대)과 노년층(60대 이상)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도서관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자들의 사용성(usability) 평가를 통해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기존 홈페이지의 내용구성과 디자인 및 인터페이스를 개선할 뿐 아니라, 이를 모바일 앱 환경에서도 호환성을 가지고 사용되 모바일 환경에 맞는 다른 디자인과 인터페이스로 접근되고 사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온라인공간에서 이용 가능한 다양한 전자자료 및 미디어의 개발과 확충이 선결되어야 한다. 조사결과에서 전자자료의 구비가 매우 미비하고 특히 전자저널의 경우 한밭도서관만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전자자료와 미디어의 선별과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기초한 다양한 디지털정보 서비스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개발 또한 필요하다. 요구조사에서 이용자들은 매우 기초적이고도 고전적인 도서관서비스 즉, 장서의 대출반납과 시설 이용만으로도 만족한다는 결과내용에 머물기보다, 도서관이 선제적으로 이용자들의 필요들을 예측하고 현대화된 지능정보서비스를 개발·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다양하게 구축된 디지털자료들과 지능정보서비스들을 도서관 블로그나 SNS를 통해 적극적

으로 홍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보이용교육 즉,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서비스와도 연결하여 온라인공간에서의 서비스와 도서관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고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대전지역 도서관만의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를 계획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에서 대전시민들은 특성화하고 배려해야 할 서비스 대상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 계층을 지목했고, 특성화 서비스 주제로 문화·예술 및 과학·문화 영역을 꼽았다. 이를 종합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및 과학을 주제로 한 특화장서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이를 대전지역 도서관 서비스를 상징하는 '브랜드화 (brand identity)'를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뿐 아니라, 통계자료에서 대전광역시가 점차로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실버계층 및 퇴직자를 위한 특성화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도서관서비스가 계획될 필요도 있다. 특히, 연령대가 높은 직장인/자영업, 퇴직자들의 경우 특성화 서비스 주제를 과학·문화로 지목했다는 사실을 참고하여 실버계층을 위한 과학과 문화와 관련된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 또한 대전지역 도서관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브랜드화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끝으로, 대전지역의 도서관의 현단계 특성을 통계적으로 조사하던 중 가장 취약한 영역은 예산과 인력부분이었다. 특히 법정사서정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대전광역시 도서관들은 160여 명의 정규직 사서직이 더 충원되어야 한다는 통계자료가 제시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사서직 충원과 채용은 시급해 보인다. 현재 이용자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도서관발전계획이 세워지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가려는 상황에서 이 계획들이 보다 구체적이고도 전문적으로 운용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라도 사서전문직의 충원은 시급하다. 이는 지속가능한 도서관 발전과 효율적인 도서관운영을 위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예산채정과 인력구성이 제도화되는 것으로 도서관발전 방향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및 대표도서관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였고, 지역주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도서관 발전 계획과 전략의 방향이 될 수 있는 시사점들을 도출하여 발전방향들을 논의하였다. 차후 계속되는 연구에서는 이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추진방향 및 실천 전략과 로드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구정화, 조용완 (2021). 우수사례를 통해 본 공공도서관 건축 경향 분석: 북미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181-208.
 [2]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21. 05. 20.) 출처: <http://www.libsta.go.kr>

- [3]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2021. 05. 20.) 출처: <http://www.daejeon.go.kr/index.do>
- [4] 대전의 통계 (2021. 05. 20.) 출처: <http://www.daejeon.go.kr/sta/index.do>
- [5]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세종: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6] 한희정, 박태연, 서진원, 양동민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도서관 구축 전략.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2), 73-102.
- [7]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5). World Population Ageing 2015. United Nations, NY: 2015.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oo, Joung Hwa & Cho, Yong Wan (2021). Trends in public library design and construction through reviewing the excellent cases of the awarded library buildings: Focusing on public libraries in North America.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1), 181-208.
- [5] Presidential Committee on Library & Information Policy of Korea (2019). The 3rd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d Plan 2019-2023. Sejong: Presidential Committee on Library & Information Policy of Korea.
- [6] Han, Hui-Jeong, Park, Tae-yeon, Suh, Jinwon, & Yang, Dongmin (2018). A study on establishment strategies toward the future librar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2), 73-102.